

2015년 지방 양회 3대 국가전략 추진 동향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계획,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지방 양회(两会) 개요
2. 지역별 3대 국가전략 추진방안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지방 양회는 매년 3월 초 전국 양회가 개최되기 전 중국의 각 성급 지방단위(성·직할시·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됨.
 - 지방 양회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연초에 개최되는 지방 최대의 정치 행사임.
 - 2015년 지방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는 3대 국가전략 추진방안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장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계획,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계획임.
- 2015년 지방 양회에서 제시된 3대 국가전략에 대한 지역별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관련하여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추진 △ 각 지역별 경제벨트 구축방안 △ 해상실크로드 협력 추진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음.
 - ‘장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계획과 관련하여 △ 교통, 생태환경, 산업분야 협력방안 △ 각 지역별 산업 이전 및 주력산업 전환 등이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었음.
 -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계획과 관련하여 △ 권역 내 대도시권 개발 계획 △ 장강연안 항만 서비스 및 시설 개선 △ 물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이 제시되었음.
- 2015년 지방 양회에서 제시된 지역별 추진방안은 ‘뉴노멀(新常态)’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평가됨.
 - 각 지방정부는 3대 국가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며, 이후 각 지방정부마다 3대 국가전략 실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1. 지방 양회(两会) 개요

■ 지방 양회는 매년 전국 양회가 개최되기 전 중국의 각 성급 지방단위(성·직할시·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됨.

- 지방 양회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이하 ‘지방 인대’)와 지방 정치협상회의(이하 ‘지방 정협’)를 일컫는 것으로, 매년 초에 1회 개최되는 지방 최대의 정치 행사임.
- 2015년에는 중국의 ‘뉴노멀(新常态)’ 시대를 맞아 3대 국가전략¹⁾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별 시행방안이 주요 이슈들 중 하나로 부상하였음.
- 이 전략들의 공통점은 본격적인 ‘뉴노멀’ 시대를 맞아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임.
- 각 지방정부는 3대 국가전략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을 제시함.
- 31개 성급 단위의 지방 양회가 2015년 1월 7일 허베이를 시작으로 1월 27일 산둥에 이르기까지 1월 한 달 동안 순차적으로 개최되었음.

■ 지방 양회의 주요 업무는 △ 지방정부 수장 선출²⁾ △ 전국 양회의 대표단 구성 △ 정부의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확정하는 것임.

- 지방 인대에서는 성장·부성장, 고급인민법원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 등 지방정부 및 지방 사법기관의 수장을 선출하고, 지방 인대 폐회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상임위원회(주임, 부주임)와 지방 인대 폐회 이후 개최되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구성함.³⁾
- 또한 지방 『정부업무보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문건 및 지방정부의 예산결산 내역을 심의함.
- 『정부업무보고』는 지방 인대에서 발표되는 정책 문건 중 가장 핵심적인 문건으로, 정부의 지난 정책 성과를 검토하고 올해의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향후 1년간의 지방정부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지방 정협에서는 지방 정협 주석·부주석 등 정협 지도부와 지방 정협 폐회 이후 개최되는 전국 정협에 참석할 대표단을 선출하며, 지방 인대와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업무보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함.

1)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계획,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계획.
 2) 대부분 사전에 결정된 인사를 공식으로 확정하고 추진하는 형식적 절차임.
 3)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당서기가 겸직함. 단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 당서기가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인 경우와 신장, 티벳 등 특수한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당서기가 주임을 겸직하지 않음.

2. 지역별 3대 국가전략 추진방안

가. 지역별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방안

■ 2015년 지역별 양회 업무보고에서 랴오닝, 산둥, 후베이, 산시(陝西), 간수, 광시, 허난성 정부는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표 1 참고).

- 각 지방정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자유무역시범구(自由貿易試驗區, Free Trade Zone) 설립사업을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연계하여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표 1. 2015년 신규 자유무역시범구 추진 현황

선정 후보지	명칭	지방 양회 정부업무보고 추진사항
랴오닝성	다롄(大連)보세구	· 다롄 자유무역시범구 선정 신청 추진 · 잉커우(營口)시의 중·한(中·韓) 자유무역시범구 건립 사업 적극 지원
산둥성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보세구	· 칭다오 자유무역지구 선정 신청 추진
허난성	정저우(鄭州), 자오쥔(焦作), 난양(南陽)보세구	· 자유무역시범구 신청, 해외바이어 투자사업 심의 대리 제도 개선
후베이성	우한(武漢)보세구	
산시성(陝西)	시안(西安)보세구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세관 제도 적용 · 시안 자유무역시범구 선정 신청 추진
간수성	란저우(蘭州)보세구	· 2015년 7월 중에 란저우(蘭州)보세구 시범운영 테스트 통과 후 설립 인가를 받을 계획
광시성	친저우(欽州)보세항구, 평양(凭樣)보세구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시범구 업그레이드 · 북부만(北部灣)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추진 · 평양(凭樣) 국가중점개발개방시범구 설립 신청
충칭시	양루(兩路), 춘탄(寸灘), 시용(西永), 귀안(貴安)보세구	

자료: 『21세기경제报道』(2015), 『聚集28省“两会”资本关键词:“一带一路”上位机构热推“混改”』.(2月3日)

■ 신장(新疆)성 양회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 핵심지역 건설 실시의견 및 행동계획(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建设实施意见和行动计划)』(이하 『계획』)이 결의되었음.

- 신장성은 '실크로드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 권역 중 핵심지역이라는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 및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심화시키고, 우루무치와 카스(喀什, 카슈가르)를 중심지역으로 삼아 교통·물류·금융·과학기술 및 의료서비스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임.

- 베이징-신장성 이우(伊吾)현-카자흐스탄/러시아 노선, 상하이-란주-우루무치 노선, 광둥-거얼무-카스-파키스탄/타지키스탄 노선, 북·중·남 3개 철도노선 건설공사를 진행할 것임.
- 2015년 우루무치(乌鲁木齐)시는 「아시아-유럽 경제무역협력시험지구(亚欧经贸合作试验区)」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승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임.
- 이리허무 사비얼(伊力哈木·沙比尔) 우루무치 시장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시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와 세부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언급하였음.
- 향후 계획의 진행 여하에 따라 해당 지구가 자유무역시험구로 승격될 가능성도 있음.

그림 1. 신장성 신규 철도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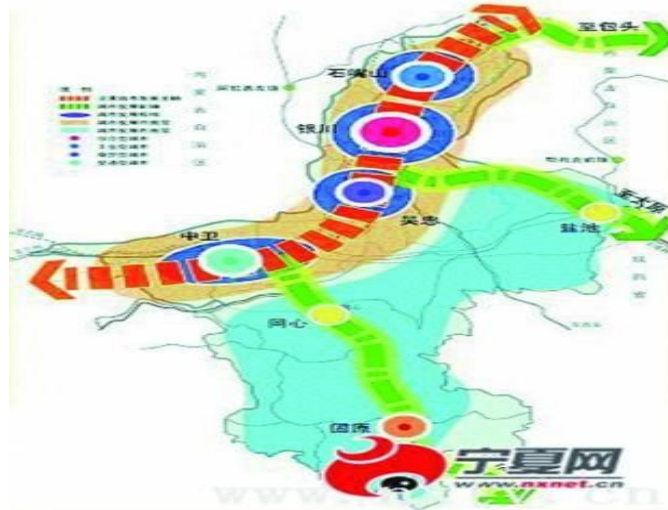
자료: 『亚心网』(2015), 「聚焦自治区两会之现场: 新疆出台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实施意见」, (1月25日)

-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is planning to build new railways, maintain existing ones, and construct new expressways.
-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is facing two major challeng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ducing the fragmentation of urban areas. While urban fragmentation is a serious problem, the region also faces issues with the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compared to other areas.
-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passed the 『Ningxia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Plan (宁夏空间发展战略规划)』 at the 2015 local government conference.
-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is promoting the Yellow River Economic Belt (沿黄经济带)⁴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Great Yinchuan Urban Circle (大银川都市圈) as a core, with Shizui Shan (石嘴山), Guyuan (固原), and Zhongwei (中卫) as key nodes for urbanization.
- Through these projects,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aims to expand its international influence and designate the Qingshui River Urban Industrial Belt (清水河城镇产业带)⁵ as a pilot zone for the 'Silk Road Economic Belt'.

4) 2010년 12월 10일부로 국무원으로부터 국가급 중점 개발지역(지역도시권)으로 승인됨.

- 아이홍빙(艾红兵) 닝샤 계획관리위원회 총무처 처장은 황하유역경제벨트(沿黄经济带)가 닝샤자치구 면적의 60%, GDP의 80%, 인구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닝샤 중남부 지역의 생태이민수요(生态移民需要)⁶⁾를 소화하는 역할을 맡아 새로운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2. 황하유역경제벨트(沿黄经济带) 위치도



자료: 『光明网』(2012), 『把沿黄城市带打造成“黄河金岸”』. (8月29日)

■ 구이저우성은 고속철도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신규 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할 것임.

- 천민얼(陈敏尔) 구이저우 성장(省长)은 2015년 1월 26일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구이양(贵阳)과 난닝(南宁)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고속철 건설계획을 2016년 발표될 『13차 5개년 계획(‘十三·五’)』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향후 구이양시에 여러 고속철 노선들이 설치될 예정으로, 주변 도시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것임.
 - 2014년 말에 ‘구이양-광저우’ 고속철 노선이 개통되었는데, 통행시간이 21시간에서 4시간 내외로 단축되어 구이저우성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되었음.
 - 따라서 ‘구이양-난닝’ 철도 건설이 실현되면 해당 노선 인근 지역들의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구이저우성 정부는 향후에도 철도 노선 건설을 확대하여 ‘고속철도 경제벨트(高铁经济带)’를 구축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음.

- 5) 료반산(六盘山) 풍경구 등 여행 산업과 지역 특색 농업 중심의 도시개발 지역.
- 6) 환경변화로 인한 이민(ecomigration, eco+immigration) 수요를 지칭하는 용어. 중국에서는 주로 장강, 황허 등의 수원지 보호, 토지유실 위험지역 관리 등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을 이주시킬 경우를 지칭함.

- 현재 논의 중인 ‘구이양-후베이성 상양(襄陽)’ 고속철 노선은 구이저우성 정부가 구상 중인 ‘구이양-허난성 정저우(鄭州)’ 노선을 건설하기 위한 1단계 노선으로 간주됨.
- ‘구이양-허난성 정저우(鄭州)’ 노선은 후베이성이 건설 추진 중인 ‘원난성 자오통(昭通)시-충칭시 첸장(黔江)구-후베이성 언스투자주먀오주자치구(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 노선과 중첩되어 두 지방정부 간 고속철도 유치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푸젠(福建)성은 2015년 1월 말 『푸젠성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전략 실행의견(福建省融入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战略实施意见)』을 제정하였음.

- 푸젠성 정부는 샤먼(廈門), 장저우(漳州), 취안저우(泉州), 푸저우(福州)를 중심도시로 삼아 동남아 등 인근 지역들과 해상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 전략 실행을 위한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임.
- 아세안을 비롯한 연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해양 및 무역 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샤먼(廈門) 동남 국제항운센터(东南国际航运中心)설립 및 샤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표 2. 지역별 ‘일대일로 (一帶一路)’ 전략 추진방안 개요

추진 지역	세부 내용
랴오닝성, 산둥성, 후베이성, 산시(陝西)성, 간수성, 광시성, 허난성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추진
닝샤회족자치구	· Ningxia 공간발전전략계획(宁夏空间发展战略规划) 수립 - 황하유역경제벨트(沿黄经济带) 구축
구이저우성	· 고속철도 경제벨트 구축 - 구이양(貴陽)과 난닝(南寧)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푸젠성	· 『푸젠성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전략 실행의견(福建省融入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发展战略实施意见)』 제정

자료: 본문 내용 정리.

나. 지역별 ‘장진지(京津冀)’ 계획 추진방안

■ 각 지방정부는 2014년 9월 4일 국무원 산하 「장진지 지역협동발전 영도소조(京津冀协同发展领导小组)」⁷⁾ 3차 회의에서 결정한 협력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7) 2014년 8월 2일 국무원 산하로 설립되었고,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가 조장임.

- 첫째, 세 지방정부는 ‘징진지 광역철도투자유한회사(京津冀城际铁路投资有限公司)’⁸⁾를 설립하고, 지역간 광역호환 교통카드(一卡通)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통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 베이징-선양 철도 노선(京沈客专), 베이징-장자커우(京张铁路) 철도 노선, 베이징-텐진 공항선(京津城际机场引入线) 등 각종 신규 철도건설 사업 △ 베이징 외곽 대순환도로(北京大外环) 등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둘째, 환경 분야에서 허베이성과 베이징시가 공동으로 다양한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추진할 것임.
- △ 수원보호림(水源保护林) 조성 △ 황사 진원지 관리(风沙源治理) △ 징진지 그린벨트 사업(京津冀保中心区过渡带) △ 대기오염 공동조사 등이 포함되었음.
- 마지막으로 산업융합발전시범지구 건설, 신공항 건설, 생태환경기능지구 건설, 과학기술구 건설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임.
- 탕산(唐山)시 차오펬이텐 산업융합발전시범지구(曹妃甸产城融合发展示范区),⁹⁾ 베이징 신공항 경제협력지구(新机场临空经济合作区), 장성 생태환경기능지구(张承生态功能区) 및 빈하이 중관촌과학기술구(滨海中关村科技园)¹⁰⁾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임.
- 황싱궈(黄兴国) 텐진시 시장은 빈하이 중관촌 과학기술구(滨海中关村科技园) 등 각종 과학기술 진흥구역 건설하는 등 베이징시와의 과학기술개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각 지방은 일부 행정기능 및 산업 이전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하였음.

- 주요 목표는 베이징시의 행정기능 일부와 산업기반을 다른 두 지역에 이전하는 것임.
- 베이징시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을 허베이성 및 텐진시로 이전하여 산업 이전과 인구 분산을 가속화할 것임.
- 허베이성과 텐진시는 베이징시에서 이전받는 기능 및 산업체들을 인수하여 지역산업 전환과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동력으로 삼을 것임.
- 『징진지 지역협동발전강요(京津冀协同发展纲要)』(이하 『강요(纲要)』)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의 중이며, 『강요』가 제정된 후에 해당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정될 것임.

■ 베이징시는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계획을 통해 수도(首都)기능 분산 및 산업과 인구의 이전을 추진할 것임.

-
- 8) 2015년 3월 30일 현재 베이징시, 허베이성, 텐진시 및 중국철도총공사(China Railway)가 3:3:3:1의 비율로 합작한다는 설립안에 공동 서명하였음.
 - 9) 2014년 7월 베이징시와 허베이성이 공동 협약을 맺고 ‘베이징(차오펬이텐) 현대화산업발전시범지역’ 건설을 추진하여 산업발전지역 건설, 생태도시개발 투자공사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지구 명칭.
 - 10) 2014년 8월 초에 베이징시와 텐진시가 협약을 맺고 텐진시의 고급 제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을 시도하고자 지정된 시범지구의 명칭.

- 2015년 1월 23일에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중점추진 사업’을 보면, 일부 행정 기관, 제조기업, 도매시장, 고등교육기관, 일부 병원이 베이징시 외곽으로 이전될 예정임.
-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대변인은 1월 24일 현재 베이징시 정부의 산업 및 인구의 이전 방침에 따라 베이징시에 소재한 대학들의 이전계획을 연구 중이라고 언급함.
- 베이징시는 또한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일반 제조업은 허베이성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BT), 신재료, 항공우주, 첨단장비 제조업 등의 전략 신흥 산업과 생산적 서비스업, 환경보호 산업 및 태양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것임.

■ 허베이성은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계획에 의거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베이징 신공항 인근에 경제구역 건설 및 인근 지역과의 도로 및 철도 노선 건설 등이 추진될 것임.
- 허베이성은 베이징으로부터 농산물 교역센터, 상품도매시장 등 일부 수도 기능을 이전받고, 베이징과 텐진이 보유한 산업기술 개발성과도 이전받아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전환을 추진할 것임.
- 랑팡(廊坊)시와 바오딩(保定)시는 이러한 기술개발 성과를 이어받아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싱타이(邢台)시와 한단(邯郸)시 또한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바오딩시는 베이징의 일부 행정·교육 및 의료 기능을 이전받을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허베이성은 이미 2014년 초에 『신형도시화 건설에 대한 의견(关于新型城镇化建设的意见)』을 발표하여 바오딩시와 랑팡시를 중점 이전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 허베이성에 유입되는 투자자금 규모의 절반은 베이징 소재 기업들의 투자액이 차지하고 있음.
- 베이징현대자동차(北京现代汽车)가 협약을 맺어 창저우(沧州)시 황화(黄骅)현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 베이징자동차(北京汽车)는 이미 황화항(黄骅港)에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표 3. 지역별 ‘징진지(京津冀)’ 전략 추진방안 개요

추진 지역	세부 내용
3개 지역 공통	· 교통 분야: 광역호환 교통카드 도입, 신규 철도/고속도로 건설 · 생태환경 분야: 공동 대기오염 조사, 그린벨트 사업 등 환경보호사업 추진 · 산업 분야: 역내 산업 협력 사업 추진
베이징시	· 일반 제조업 허베이성 등 기타 지역에 이전 · 정보기술, 첨단 제조업, 환경보호산업 등 신흥산업 육성
허베이성	· 농산물 교역센터, 상품도매시장 등 베이징시 이전 산업 수용을 통한 산업 전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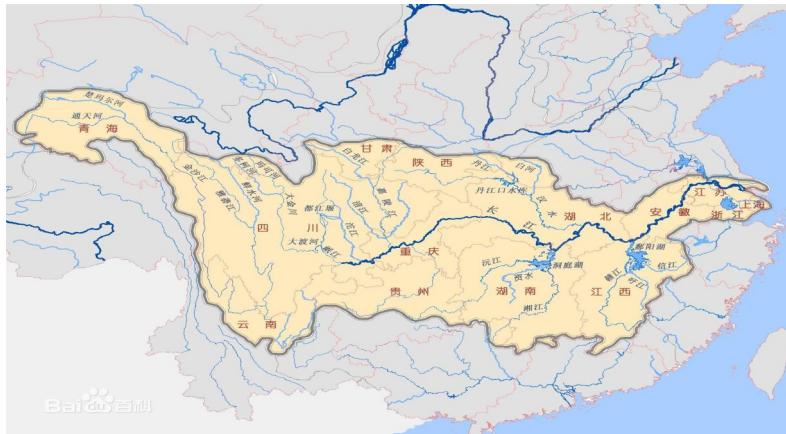
자료: 본문 내용 정리.

다. 지역별‘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계획 추진방안

■ ‘장강경제벨트’ 계획이 장강 연안 지방정부들의 양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음.

- 장강경제벨트 권역은 중국 국토의 21.4%, 전체 인구의 43%, 전체 GDP의 45%, 전체 수출입액의 39.4%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권역임.

그림 3. 「장강경제벨트」 권역 범위



자료: 『湖北日报』(2014), 「以旅游文化产业促长江经济带可持续发展」. (9월15일)

■ 후베이성은 ‘장강경제벨트’ 권역의 중심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우한시는 『장강 중 하류 항만운영센터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长江中游航运中心建设工作意见)』¹¹⁾을 기초로 △ 항만 기초설비 건설 강화 △ 종합 교통운송 체계 구축 △ 현대적인 항운 서비스 체계 구축 △ 인근 항만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향후 ‘우한-아세안’ 및 ‘우한-한국/일본’ 해운통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한지역에 외국영사관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세부적인 정책이 제시·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후베이성은 『장강 중류도시군 발전계획(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이하 『계획』)을 중앙정부에게 승인받아 해당 도시군의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¹²⁾
- 『계획』의 「장강중류도시군」은 총면적 31.7만km²에 우한(武汉) 도시권, 환창주탄(环长株潭) 도시군, 환관양후(环鄱阳湖) 도시군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형 도시군으로,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3대 광역도시군¹³⁾중 하나로 지정됨.

11) 2014년 10월 22일 우한 항운센터 건설 및 우한도시군의 지속가능사회 구축 등을 추진하여 산업 집적과 구조조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우한시 정부가 입안한 건설 계획.

12) 2015년 4월 5일 현재 중국 국무원은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음.

그림 4. 「장강중류도시군」의 위치



자료: 『湖北日报』(2015), 『祝福中三角—写在《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获批之际』, (4月8日)

■ 권역 내 다른 지역에서도 ‘계획’과 관련된 크고 작은 정책들이 제시되었음.

- 상하이시, 저장성 및 장수성 업무보고에는 장강경제벨트 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구이저우성, 윈난성 및 충칭시 업무보고에는 인근 연안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강경제벨트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윈난성은 세관구역 통관절차를 통일하는 개혁(海关区域通关一体化改革)을 시행하고, 내륙연안구역 및 특수감독구역의 새로운 감독 모델을 모색하여 무역편리화 수준을 제고할 것임.

표 4. 지역별 ‘장강경제벨트’ 계획 추진방안 개요

추진 지역	세부 내용
후베이성	- 『장강 중류도시군 발전계획(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 추진
우한시	- △ 연안 항만 기초설비 건설 강화 △ 종합 교통운송 체계 구축 △ 현대적인 항운 서비스 체계 구축 △ 인근 항만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 향후 ‘우한-아세안’ 및 ‘우한-한국/일본’ 해운통로 개설 적극적 추진 · 우한지역에 외국영사관 설립을 적극 지원
상하이시, 저장성, 장수성	- 대내 개방 추진
구이저우성, 충칭시	- 장강경제벨트 권역의 연안지역들과 협력 강화
윈난성	- 세관구역 통관절차 통일 개혁(海关区域通关一体化改革) ·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자료: 본문 내용 정리.

13) 3대 광역 도시군은 장삼각(长三角)도시군, 청위(成渝)도시군, 장강 중류도시군임.

3. 평가 및 전망

■ 각 지방정부들은 3대 국가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관련 자유무역시범구 추가지정, 고속철 건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예상된다.

- 향후 장강 연안 및 연해 지역이 아닌 서부 내륙지방의 도시들이 자유무역시범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충칭, 광시 북부만(北部湾), 신장지역이 자유무역시범구의 후보지역으로 예상된다.
- 충칭은 장강경제벨트와 육상실크로드 전략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으로 내륙 보세구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광시 북부만은 마카오와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장지역은 육상실크로드 전략의 출발점임¹⁴⁾.
- 황용(黄勇) 구이저우성 사회과학원 지역경제연구소장은 고속철 건설 사업을 통해 구이저우성의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협력과 해외무역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자오지옌(赵坚) 북경교통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고속철 건설 사업은 인구밀도 및 주민 소득수준 등에 의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이저우성의 인구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여객 수송과 화물 수송을 병행하는 노선의 구축을 제안함.

■ 이번 지방 양회에서 제시된 지방정부들의 '징진지 지역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관련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왕휘(王晖) 수도경무대학 도시경제공공관리학원 교수는 허베이성은 토지 및 노동력 자본의 비교우위가 있으나 발전 모델 확립이 관건이며, 장수성 쿤산(昆山)시가 상하이 경제에 의존하는 것처럼 허베이성도 베이징시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왕휘 교수는 허베이성은 정보화, 물류, 금융 등 생산적인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베이징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허베이성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산업 및 인구 이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4월 말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는 베이징 중관춘관리위원회와 '바오딩·중관춘혁신센터(保定·中关村创新中心)' 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바오딩시는 가오신구(高新区)에 설립을 추진 중인 텐구(电谷) 국제비즈니스센터(国际商务中心) 건설을 중관춘관리위원회 산하 자산관리기업에 위탁, 이를 계기로 베이징시와 바오딩시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 『21세기经济报道』(2015), 「资本区域潜伏样本：机构博弈第三批自贸区名单」, (2月3日) 참고.

- 귀지푸(郭继孚) 베이징교통발전연구센터 주임은 현행 지역간 철도 및 고속도로 등 교통망들이 지역간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징진지 광역철도투자유한회사(京津冀城际铁路投资有限公司)’ 설립과 운영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함.
- o 귀지푸 주임은 또한 베이징 신공항 건설 계획은 징진지 권역의 대외개방 중요성에 부합하고 역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쉬린(徐林)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발전계획국 국장은 2015년 4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지방정부와 국무원이 『징진지 지역협동발전강요(京津冀协同发展纲要)』 제정에 관한 계획을 심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장강경제벨트 권역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차오용위안(乔永远) 귀타이원안(国泰君安) 증권 수석 전략에널리스트는 국무원이 2014년 9월에 발표한 『황금수로를 통한 장강경제벨트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关于依托黄金水道推动长江经济带发展的指导意见)』 및 『장강경제벨트 종합입체교통회랑계획(长江经济带综合立体交通走廊(2014-2020年))』을 근거로 교통운송, 기계, 건축, 철강, 부동산 및 무역 등 6개 업종이 장강경제벨트 계획 추진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함.
- 관청여우(管清友) 민생(民生)증권 연구원 집행원장은 성장잠재력과 해당 권역 지방정부의 협력가능성을 감안하여 해당 권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함.
- 『장강 중류도시군 발전계획(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연구 중인 장강경제벨트 권역 개발계획의 정책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음.
- o 2015년 4월 25일 국무원은 장강경제벨트 권역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로 『후난상강신구 설립 비준에 대한 동의(关于同意设立湖南湘江新区的批复)』(이하 『동의』)를 발표하여 후난성 창사(长沙)시 상강(湘江) 서안 일대 면적 490km²의 개발 계획을 승인함.
- o 『동의』에서 제시된 주요 개발목표는 『장강 중류도시군 발전계획(长江中游城市群发展规划)』과 유사하게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및 신형도시화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건설’과 함께 고급 제조업 발전 기지를 건설하는 것임. KIEP

<참고자료>

- 『光明网』. 2012. 「把沿黄城市带打造成“黄河金岸”」(8月29日).
- 『湖北日报』. 2014. 「以旅游文化产业促长江经济带可持续发展」(9月15日).
- 『东方财富网』. 2014. 「武汉出台加快长江中游航运中心建设工作意见」(10月22日).
- 『21世纪经济报道』. 2015. 「乌鲁木齐将申报“中国亚欧经贸合作试验区”」(1月15日).
- 『亚心网』. 2015. 「聚焦自治区两会之现场：新疆出台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实施意见」(1月25日).
- 『中国证券网』. 2015. 「京津冀协同发展纲要报审 三地两会明确协同发展定位及目标」(1月26日).
- 『新华网』. 2015. 「从京津冀“两会”看三地协同发展新动向」(1月27日).
- 『中国证券网』. 2015. 「20省份全面布局“一带一路” 区内上市公司闻鸡起舞」(1月28日).
- 『中国经济时报』. 2015. 「中西部地区推进城镇化的关键」(1月29日).
- 『21世纪经济报道』. 2015. 「贵州谋划至郑州快速通道 高铁经济带提速」(1月29日).
- 『人民网』. 2015. 「地方两会日报：看京津冀三地政府工作报告中的协同发展」(1月30日).
- 『人民网』. 2015. 「地方两会日报解读28省政府报告中“一带一路”建设方向」(2月1日).
- 『中国经营报』. 2015. 「地方两会淡化竞争性指标 2015积极“靠拢”大国战略」(2月2日).
- 『21世纪经济报道』. 2015. 「资本区域潜伏样本：机构博弈第三批自贸区名单」(2月3日).
- 『21世纪经济报道』. 2015. 「西部再掀“自贸区热潮”，多省份公布申报方案」(2月3日).
- 『金融时报』. 2015. 「投资仍然是推动经济发展的主体字号」(2月3日).
- 『互联网』. 2015. 「地方“两会”召开 长江经济带成为热议重点」(2月4日).
- 『中国经济时报』. 2015. 「宁夏再出发：从空间规划开始」(2月5日).
- 『人民日报』. 2015. 「地方两会 今年这样开」(2月6日).
- 『中国新闻网』. 2015. 「地方两会布局国家战略：31省份破题“一带一路”」(2月10日).
- 『证券时报』. 2015. 「京津冀协同发展规划望月底下发 42万亿盛宴将启」(4月27日).
- 『21世纪经济报道』. 2015. 「张高丽武汉调研 长江经济带建设提速」(4月28日).
- 『21世纪经济报道』. 2015. 「长江经济带沿线省将出细则 储备谋划一批大项目」(4月28日).
- 『中华工商时报』. 2015. 「湘江新区“顺风顺水”」(4月28日).
- 『中国交通运输部』. 2015. 「城际轨道先行引领京津冀协同发展」(4月29日).
- 『经济参考报』. 2015. 「京津冀产业一体化再提速」(4月29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양한수(plinius10@naver.com)